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45 호 2005. 10. 13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중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 ~2502/FAX : (02)400-2505

譜學의 殿堂 嘉樂堂 開講 20週年

順天金氏 夏季 大學生 教養講座



乙酉年 夏季大學生 教養講座가 2泊 3日(8월11일-13일)동안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始祖墓域 同源齋 嘉樂堂에서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및 行事를 總括한 相容 首席副會長을 비롯한 各地域 會長團과 榮熙 顧問을 위시한 元老宗親들 그리고 金行輝(前 檀國大學校 大學院長)教授를 위시한 碩學 教授陣들이 雲集한 가운데 第20期 夏季 大學生 教養講座가 盛況리에 開講하였다.

이날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은 嘉樂堂에서 大學生 教養講座를開講한지 어언 20週년에 400여명의 大學生을 輩出하였다라고 回顧하면서 向後 中央宗親會는 大學生 教養講座가 宗親會力點 事業인만큼 盡力을 다하여 內實을 다지고 門戶를 開放하여 順天 金門 누구나 名講義를 聽講할수있는 機會를 提供하겠다고 力說하였다.

그리고 丙戌年 부터는 理論과 實習을 겸하여 祖上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史蹟址 踏查등 現場教育에 重點을 두겠다고 言及하였다.

鍾植會長은 지금까지 우리는 簪纓世族의 名譽를 되찾아 祖上앞에 부끄럽지않는 後孫이되기위해 있는精誠을 다 쏟아부어 始祖 墓域을 聖域化하고 極少數의 妨害도 불구하고 3년의 刻苦끝에 大同譜를 編纂하여 國內 주요 國公立 圖書館과 大學圖書館, 全國儒林과 精神文化研究院을 비롯한 譜學研究所, 美國을 비롯한 海外圖書館까지 備置하였으며 이제 宗事와 國家社會를 爲하여 큰 발자취를 남기신분과 現在 큰일을 하고 계시는 宗親들을 모은 世蹟總覽을 編纂하오니 漏落된 宗親은 樣式에 依據하여 追加로 接受하기를 當付하였다.

第20期 教育은 김승연(한밭대학교 대학원장)教授가 主管이되어 鎭연, 영희, 인섭, 동성, 규일, 상욱, 동정, 상목, 상운, 행업, 정숙, 정순교수등 學界 法曹界및 社會 著名 人事들의 地칠줄모르는 情熱의인 講義와 譜學에 心醉한 大學生들이 渾然一體가되어 주암골 嘉樂堂을 뜨겁게 달구었다.



김행업(전단국대학교 대학원)교수

★이번 교육에 협찬하신 내역★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김중식(회장)	1,000,000	김중성	50,000
김상용(상임부회장)	500,000	김덕수	30,000
김인섭(부산)	150,000	김동정	50,000
김창연	200,000	김규일	50,000
김철우(안동)	150,000	김동균	50,000
김영희	30,000	김진	50,000
박정순	30,000	김행업	50,000
김지섭(보령)	100,000	김동수	100,000
김병석	50,000	김상복	100,000
김상운	50,000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16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

회칙 제12조 1항에 의거 2005년 제16기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개별통지 생략)

2005년 10월 10일

순천김씨중앙종친회 회장 김중식

1. 일 시 : 2005년 11월 1일 오후 17시
2. 장 소 : 전남 승주군 주암면 창촌리 동원재 (가락당 회관)
 - ▶ 연락처 : 중앙종친회
 - ▶ 전 화 : 02-400-2501-2
3. 참석범위 : 중앙종친회 전임원과 대의원
4. 의 안
 - 1) 업무보고
 - 2) 제15기 수입지출 결산보고

- 3) 회칙 개정
- 4) 제16기 예산안 인준
- 5) 기타사항

전국지역 종친회장께서는 종보가 도착 되는대로 전 임원께 널리 연락하여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날 2일이 시조 추향제입니다. 총회일자는 추향제 전일로 결정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千義軍 慰靈祭

壯毅公 故 金汝叻 將軍을 追慕하다

忠清北道 忠州市가 主管하는 8千義軍 慰靈祭가 忠北道內 機關長들과 各 分野의 著名人士들과 市民들 그리고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鍾植 會長을 비롯한 宗親들과 申砬 將軍 後孫들인 卞山 申氏 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忠州市 달천공원에서 嚴肅히 舉行되었다.

이날 中央宗親會는 鍾植 會長을 비롯하여 昌淵 顧問 景南 監事등 많은 宗親들이 大舉 參與하였으며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은 獻官으로서 先祖이신 壯毅公을 위시하여 8千義軍 英靈들에게 敬虔한 마음으로 獻酌하였다.

이곳 忠州는 壬辰倭亂時 壯毅公 諱 汝叻 將軍께서 風前燈火같은 나라를 死守하기 위하여 最後의 防禦戰을 펼치시다 申砬 將軍과 8千義軍이 壯熱히 散華한 世界戰史上 唯一無二한 激戰의 곳이다.

우리 順金後孫들은 祖國守護의 魂이 살아숨쉬는 이곳 忠州 달천공원 팔천고 昏위령탑을 參拜하고 先祖이신 壯毅公 諱 汝叻 將軍의 큰뜻을 이어받아 國家와 民族 앞에 한집 부끄럽지않는 後孫이 되어야겠다 .



(헌작하는 宗親회장)



모두 내 탓이다.

옛날에 내 탓이오 하고 한번 참으면 오래 즐거움을 만난다고 했다. 항상 능력 없는 자가 자기 탓하지 않고 불만 불평만 부리는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이 모두가 그렇다. 모든 것이 내게서 비롯하는 것이다. 누가 원망하고 탓 할 것도 없다. 그냥 내 탓이오 하고 살면 편하다. 순간적으로 참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한 세상일이다. 네가 통글어지면 나도 통글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고부간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 없는 세상을 살고자 마을의 아주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냐고. 그러자 용한이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며느리는 말한다. 그러자 그는 백일동안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해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 며느리는 지극 정성으로 인절미를 해 바친다. 그런 며느리의 정성에 시어머니는 감복하게 된다. 그 사이 며느리는 역시 달라진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 커지자 며느리는 덤석 겁이 났다. 혹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서 말이다. 며느리는 용한이를 찾아가 착한 우리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한다. 그러자 용한이는 말한다. 그대 인절미를 드시고 시어머니는 죽었구나. 그렇게 못살게 하는 시어머니는 죽었고 아주 착한 시어머니가 살아왔으니 내 말이 어떠냐고 묻자 며느리는 용한이 앞에서 그만 고개를 떨구고 한잔을 울었다한다.

세상을 꾸밈한 일은 아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리 다가오기 때문이다.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은 다 예뻐 보인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싫어질 때 내게 자비심이 사라졌고 증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미소를 흘려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자아반성과 杼우치고 깨달음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이번 환절기에 내 마음에 적재되어 있던 杼은 마음과 불만 불평 杼버리고 오만과 증오 杼악한 눈빛과 성냄을 다 씻어 내 버려서 이 모두가 다 내 탓이오 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임부회장 김상웅-

七信契의 盛事

監察公派 副護軍公의 十五代孫 諱在基公은 효성이 지극하여 양친에 대한 극진한 봉양(奉養)은 물론이고 친환(親患)시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정성을 다하였으며 상(喪)을 당해서는 도롱이(雨裝) 한 장으로 수묘(守墓)살이를 하며 주변 사람들이 묘막(墓幕)을 마련해 주겠다 하니 "父母님께선 찬 지하에 계신데 어찌 묘막이 필요하겠는가" 하며 3년씩을 정성을 다하였었다. <밤이면 호랑이가 와서 지켜주었다고도함> 그 효심(孝心)에 감동한 세인(世人)들은 '朝鮮의 孝子'라 일컬었다고 한다. (大同譜 1권 589페이지 참조)

공의 생존 시 문우(文友)들과 조직한 칠신계(七信契)가 있는데 公 사후에 계원들이 전국 八道 유림에 통문(通文)하여 친목을 얻어 추모비를 세웠었고 이 계조직은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계원들이 지방청(地方廳)에 건의하여 도비(道費)와 군비(郡費) 一億여원을 확보하고 정문(旌門)과 추모비의 개수(改整) 그리고 칠신계기(七信契記)를 번역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明在 記>

알리는 말씀



전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順天金氏 世蹟總覽의 발간은 千 여년을 이어 살아오신 우리 조상의 훈업(勳業) 덕업(德業) 학업(學業)등 각 분야의 세적(世蹟)을 종합 정리하여 한 책으로 엮어 누구나 특히 후생들이 생활 주변에 두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편찬되도록 하여 조상의 고귀한 업적을 이해하여 송조 정신을 높이며 긍지를 가지고 생업을 영위하여 우리 順天金門을 더욱 빛내도록 함 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양해하시고 지난 번 수보(修譜)시에 입력되지 않은 사항으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본회로 연락을 주시고 또한 기히 입력된 분묘의 사진도 별초 후 깨끗한 모습의 사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종파 또는 지역 중 친회에서 저명인사(著名人士)로 천거되신 분 중에 아직 자료를 안 보내주신 분께서도 협찬금과 함께 조속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적총람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창 연



자랑스런 종친

황성공파 14대손 김삼근

김삼근 회장은 전상용사 복지증진과 사회봉사에 헌신해와 국민훈장 등 여러차례 상을 받았다.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부회장이며 화랑용사촌 설립자 삼근 종친 국민 훈장 동백장

6.25전쟁 상이용사들을 모아 집단촌을 설립,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상이용사 삼근 종친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삼근(金三根 67) 종친이 화랑용사촌을 설립한 것은 64년 6.25전쟁 발발 당시 중학생이던 김씨는 학도지원병을 입대했다가 51년 경기 포천 전투에서 왼쪽 다리를 다쳐 제대한 뒤 차별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상이용사들을 모아 자활터전을 마련했다.

- 회장용사촌 전무이사
- 회장용사촌 대표 취임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수료
- 국무총리 표상
- 제7회 5.16민족상 수상(단체)
- 국민포상 수상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
- 국방부 조달본부장 우수업체 표창장
-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모범성실납세자 국세청 표창장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부회장

서울 공릉동 철길 옆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출발한 화랑용사촌을 처음 몇 대의 수동 직물 기계로 스웨터를 생산하던 수준에서 지금은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기업이자 18가구의 보금자리로 자리잡았다.

군에 겨울내의와 목도리, 구두 끈 등을 납품해 온 화랑용사촌은 국방부에 의해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상이용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동료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납기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됐고요.”

김씨는 또 “한쪽 다리와 손을 못쓰는 저는 그래도 낮습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각종 장애를 가진 상이용사들을 기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고 말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삼근 종친과 마을 사람들은 국립묘지를 찾아 먼저 간 동료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임계 계회도, KBS 진품 명품



1억 5천만원 인증서

지난 7월 31일 11시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영된 쇼 진품명품에 우리 선조 允자 현자 할아버지가 참여하신 계, 회도가 1억 5천만원의 감정 평가가 나오므로써 400여년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오늘의 임계회 장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우리 순천김씨 안동 종친회에서 주관하고 촬영 장소는 현

중앙종친회 간사장 봉환종친 자택에서 약 2시에 걸쳐 일한문중 후손은 물론 관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재현 작업을 마쳤다.

동리 允安선생 문집 중에서 임계회에 관한 기록을 발췌한 구담의 동정 종친등 고증 자료가 이미 관계 기관에 접수됨으로써 문화재 지정이 눈앞에 와 있는 실정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도 이와 같은 계모임이 400여년을 이어오면서 대대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자람이 아닐 수 없다.



乙酉四月十日
九潭翁潭精舍
順天人金五鉉

敬次壬癸稷帖韻
道義修交十一翁
生年壬癸會西東
三春好節朋桃李
九月佳辰喜菊楓
廣寺悠傳懿跡
蜂壘樂振清風
滄桑累變情無變
緜々雲仍景仰中

도와 의로 수교하신 열한분 이셨으니 나신해인자계속 생들서에 서모였네 살흔의 좋은 계절에 도와이 화번하고 구월의 맑은날에 국화 단풍 즐기셨네 관홍사에는 유유히 아름다 운지치정하고 불망대에는 즐겁게 맑은바 람떨지셨네 바다와 뽕밭은 여러번 변해 도그정 변함이 없네 끊임없이 그의 자손들 우려는 종일세

외손봉사 500년

감사 위

權執經
太宗 15年 乙未 卒 (1415)
字 通夫 安東人 一齊 漢功의 曾孫



公의 墓所는 九潭里 東쪽 月巖山에 있다. 墓前에는 圭首碑와 長明燈이 設置되어 있고 下方 上圓式墳으로 內外 雙墳으로 合葬되어 있고 墓側 周圍를 돌로 쌓아서 保護케하고 있다. 長明燈을 設置하고 있는 墓는 우리 地方에서는 直提學 柳克怒(全州李氏) 安東 臨下墓와 參議 金有溫墓와 三箇所 뿐이다. 당시 葬禮文化의 연구 對象이다. 墓碑의 陰記는 없고 前面 太宗 15年(1415)이라는 判讀이 어려운 圭首碑가 있다.

公은 都劍의 政丞 禮泉府院君(?~1349)의 曾孫이며 太宗때 領議政을 지낸 仲和(1322~1408)의 從孫이다. 아들이 없어 女婿인 順天金氏 參議 金有溫이 이곳에 定着하여 月巖精舍를 짓고 參議의 後孫이 墓所를 守護하고 10月 時祭를 500년이 넘도록 가까이 모시고 있다.

서 위

관사공(元石)의 孫子 司勇公(諱粹翰)의 女로써 안당의 난(신사무옥)때 심정과 송사련의 무고로 처형당한 순흥안씨 처인의 부인묘이다.

친정인 구담에 돌아와 시어머니 柳氏와 더불어 후사가 없어 돌아가신 후부터 400여년 넘게 우리 順天金氏 九潭門中에서 시제를 받들고 있다. 이분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영가지 규행편에 舍女로 소개하고 있다.

구담 김 동 성

재현 모임 협찬금 명단

김 동 완	300,000	김 동 숙	200,000
김 종 성	200,000	임 계 회	600,000
김 종 해	300,000		



節齋 金宗瑞 절재 김 종 서의 忠節 재조명

金榮熙 상임고문

- 1. 大虎로 일컬어진 文武 겸전의 大臣
- 2. 忠節의 精神을 기리며(다음호)

1. 大虎로 일컬어진 文武 겸전의 大臣

조선 초기의 명신 절재 김종서는 흔히 장군으로 불리어진다. 그가 세종의 명을 받아 압록강 상류에 4군(四郡)을 설치하고 두만강 유역에 6진(六鎭)을 대적하여 북방의 강역을 넓히는 불후의 큰 업적을 쌓은 결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태종 5년(1405)문과에 급제하여 출사(出仕)한 문신이다. 그는 지방의 하급 수령직에 있을 때에는 백성을 자애로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이었으며, 대간(臺諫)이나 승지(承旨)를 거쳐 축요직(軸要職)을 역임하면서는 강직, 엄정하면서도 실무(實務)에 밝아, 당대 관료의 사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세종(世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삼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왕정(王政)을 펴는데 멸사봉공(滅私奉公)하였고, 정승의 반열에 올라서는 더욱 국정(國政)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그는 당대 최고의 문신 학자군을 이룬 집현전 학사들을 지휘하여 <고려사> 편찬을 주도하였고, 이어 <고려사절요>를 편수하는 책임을 맡는 등 뛰어난 문인 학자적 능력을 발휘한 전형적인 文官이면서도 드물게 호방(豪放)한 기개가 있고 지략(智略)에도 밝아 무인적(武人的)인 기상을 아울러 갖추었던 인물이다.

세종이 자신의 최측근으로서 승정원에 있는 김종서를 발탁하여 돌연 함길도 관찰사로, 임기가 끝나자 다시 함길도 절제사로 전보 발령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이때 과연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북방개척의 그토록 큰 공을 세웠던 것이며, 그가 지은 다음 시조에 그의 호방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찬데
萬里邊城에 一長劍 짚고 서서
긴과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¹⁾

세종의 특명을 받고 함길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길주의 성투에 오른 절재는 멀리 아득하게 펼쳐진 옛 고구려 땅 만주벌판을 바라보며 이처럼 가슴 벅찬 감동을 한 수의 시로 읊은 것이다.

당시의 벼슬아치들이 북방의 변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울을 벗어나는 지방 근무조차 기피하는 실정이었으나, 그는 오히려 찬바람 몰아치고 야인의 침입으로 위태롭기만 한 변방 수령직을 기꺼이 맡고자 하였다. 변방 개척과 야인의 정벌은 실로 국초 이래로 국가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세종의 가장 강력한 국정지표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북방 개척의 적임자로 자신이 선택된 것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겠지만,²⁾ 그 자신도 국가의 원대한 계획에 대장부로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 하에 온갖 간난을 극복하고 여진을 정벌하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확정짓는 큰 공을 세우고, 내쳐 만주벌판까지 공략하여 북쪽 외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으나 다시 경사(京師)로 귀한케 한다. 오랑캐정벌과 강역 확장을 위해 함길도에 온지 만 7년만인 세종 22년(1440) 12월, 그의 나이 57세 때이다.

이 때 그는 자신이 개척한 6진 지역을 감싸안고 동북으로 흐르는 두만강의 넘실대는 푸른 물결을 굽어보면서 감개무량에 젖었다. 고려 때의 윤관에 비견되는 대 공을 세워 명예로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될 것임에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하였을 것이다.

長白山에 기를 뜻고 豆滿江에 말을 씻겨
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게 麟閣畫像을 누구먼저 하리오³⁾

장백산(長白山)은 백두산(白頭山)을 말하고, 인각(麟閣)은 한 나라 때의 기린각(麒麟閣)으로서 공신(功臣)의 화상(畫像)을 그려 걸어놓은 건물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변방 오랑캐와 대치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며 쌓은 공은, 저 문약(文弱)에 빠진 경직(京職)의 문신들로서야 감히 바라 볼 수가 있으랴. 때문에 후세에 공신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는 곧 자신임을 자부하게 된 것

이다.

그런데 대호(大虎)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으로 보면 언뜻 그의 체모가 장대할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듯,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본디 儒臣으로서 몸집이 작고, 관리로서 재주는 넉넉하나 무예는 모자라니 장수로서 마땅한 체격은 아니다. 다만 그가 일을 만나면 부지런하고 조심하며 일 처리하는 것이 정밀하고 상세하다. 4진(鎭)을 설치할 때에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알맞아서 그 효과를 보았으니 포상할 만하다.”⁴⁾

김종서는 북관에 부임하여서도 정무처리에 매우 엄격하였다. 그런가하면 변방에서 고생하는 장수와 병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밤에는 큰 잔치를 베풀어 배불리 먹이면서 위로 했다. 변방의 거친 풍토에 익숙해진 무관들은 문신인 김종서를 나약한 문관 쯤으로 여기고 한동안 반발하여 알아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어느날 밤 잔치 중에 화살이 날아와 술 항아리를 맞추자, 좌우가 모두 놀라 소란스러웠으나 김종서는 태연자약하여 말하기를, “간사한 무리들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겠는가!”⁵⁾ 이를 보면 그는 곧 무관 못지 않은 큰 담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端宗 계유년에 皇甫仁, 金宗瑞, 鄭 仁三公이 되었는데, 종서는 더욱 지략이 많아서 그 때 사람들이 지목하여 ‘大虎’라고 하였다”⁶⁾

그런가 하면 엄격하면서 큰 절개를 지닌 인물로 평하기도 하였다.

“세종 때 함길도 도절제사로서 그로 하여금 6진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조정 에 들어와서는 좌의정이 되었다. 엄격하고 강직하며 큰 절개가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大虎라고 지목하여 불렀다.”⁷⁾

위에서 본다면 그를 ‘대호(大虎)’라고 부르게 된 것은 큰 체구의 무서운 존재라서가 아니고, 지략이 많으며, 엄격하고 강직하면서도 큰 절조를 지녔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민속이나 설화 속에서 호랑이는 대체로 산신(山神) 등 신령스런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호’라는 별명은 바로 당시 사람들이 외경(畏敬)과 추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장군은 사민(士民)들이 첨앙(瞻仰)하여 마지않는 거국적인 영웅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소이연(所以然)이 그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1) 「瓶窩가요집」, 한편 이 시조는 한문으로 翻文되어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한다. “朔風吹本末 明月雪裏寒 萬里邊方城杖修劍 長嘯一聲無滯”(節齋先生實記 卷二)이하 實記라 한다.

2) 세종은 일찍부터 김종서에게 북방개척의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한 듯하다. 함길도 관찰사 임명 1년 전인 세종 14년에 갑자기 활과 화살을 내려 주면서 “항상 차고 있다가 짐승을 쏘라.” 한 적이 있었던 바, 이 때에 와서 국왕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3) 진본 「청구영언」, 이 시조 역시 한문으로 翻文되어 전한다. “長白山樹幟 斗滿江洗馬 彼哉腐儒此不誠 丈夫哉麟閣圖像 不知誰爲先者”(實記 卷二)

4) 세종실록 22년 7월 5일조 기사 참조.

5) 「西征錄」 “宗瑞既設四鎭 徙南民以實之... 日置酒張樂 大饗將士 一日夜宴 有反側之徒 射中酒樽 左右驚擾 宗瑞自若曰 奸人試我身 何能爲哉”

6) 「東閣雜記」 “端宗癸酉 皇甫仁 金宗瑞 鄭 爲三公 而宗瑞尤多智略 時人目爲大虎”

7) “世宗朝 咸吉道 都節制使 平定六鎭... 人爲左議政 嚴毅有大節 時人目之以大虎”(實記 卷三)

8) 단종이 어린 나이로 등극하자 조야에서 모두 위태롭게 여기며 오직 좌상 김종서에게 의지 하였다. 그러므로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자비하게 좌상을 격살하였다. (端宗 年嗣位 中外危疑 而先生匡綏鎮伏 有大臣之度 上下倚焉 世祖左首陽潛邸 將靖難 以先生多智略 有大虎之目 欲先除去 癸酉十月十日 親率諸武士 至先生家 使林雲 椎擊先生 地：實記, 卷二, 「左議政 節齋金先生宗瑞 神道碑銘并序」). 이하 神道碑銘이라 한다.



<수필> 내고향 행화촌(杏花村)

金宗煥(수필가, 남은공 16대손, 시조42세)

음력 2월의 판 이름을 행월(杏月)이라고 한다. 살구꽃이 피는 달이라는 뜻이다. 음력 2월은 양력 3월에 해당한다.

살구나무와 매화나무는 같은 장미과 나무로 모양과 색깔, 성질이 비슷하다. 살구꽃과 매화꽃도 모양과 크기, 색깔과 향기가 비슷하다. 두 꽃이 다 이른봄에 잎보다 먼저 피어 화사한 자태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다만 매화꽃이 살구꽃보다 조금 먼저 핀다. 추운 눈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품고 핀다하여 사군자(四君子) 중의 으뜸으로 칠 뿐만 아니라 설중군자(雪中君子)니 설백(雪魄)이니, 또는 설빙벽자(雪魄氷姿), 설리청향(雪裏清香)이니 하는 등의 찬사를 받는다.

매화는 일생이 추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는 옛 시구나, 내 한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하면 가는 곳마다 연화 극락세계가 열린다. (一心常清淨 處處蓮花開:上月圓覺大祖師)는 말을 음미해 보면 못 사람들이 매화꽃에 대해 왜 그리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지 알만하다. 매화꽃에서 그 고결한 지조와 청향(清香), 청심(淸心)과 청복(淸福)을 배울 만하기 때문이다.

살구꽃은 매화꽃보다 한발 늦게 핀다. 그래서인지 그 아름다운 자태에서는 별 손색이 없으면서도 매화꽃의 명성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살구꽃은 매화꽃을 시샘하거나 서운해 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가냘픈 매화꽃을 형제애로서 가상히 여기듯 느긋하고 여유롭게 천천히 핀다. 결코 조금해 하거나 초조하게 앞 다투어 서두르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꽃은 아니다. 주어진 여건대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온유하고 충실하게 피는 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수와 사명을 따라 묵묵히 덕스럽고 은혜스럽게 핀다.

따뜻한 봄비가 그리운 3월에, 살구꽃은 아직도 늦잠을 자는 푸른 잎들을 놓아두고 발그레한 분홍빛 홍조를 띠우며 수줍은 얼굴로 초봄을 맞는다. 행검도시(杏臉桃腮). 곧 살구꽃빛 해맑은 얼굴과 복사꽃빛 불그레한 뺨을 지닌 미인의 자태로 화려하고 의젓하게 피어나는 것이다. 살구꽃은 군자를 보필하는 요조숙녀다운 꽃이기도 하다.

매화꽃이 강인하게 내뿜는 즐기에 다소 성기게 꽃을 피운 반면, 살구꽃은 송이송이 무리지어 탐스럽고 복스럽게 핀다. 가까이서 보면 화사한 자태와 그윽한 향기가 환희하리만큼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분홍빛 꽃구름 바로 그 자체다.

내 고향은 1백 호쯤 되는 마을이었는데 거의 집집마다 살구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행화촌(杏花村)이라고도 했다. 살구꽃이 필 무렵, 조금은 찬 기운이 감도는 속에 따사로운 봄볕을 받으며 마을 옆 등산에 올라 온 마을을 바라다보면 연분홍 꽃구름이 둥게둥게 솟아오르듯 그야말로 울긋불긋한 꽃동네요 꽃대궐이었다. 꽃다운 봄마을이라는 뜻의 방춘리(芳春里)의 이름에 걸맞게 마을을 에워싼 푸르른 대나무, 동백나무와 어울려 혼자서 보기에는 너무도 아까우리만큼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 담채화였다.

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을이 6.25전쟁 때 좌우 양진영의 거듭된 점적으로 온 마을이 불타 쑥밭이 되어버렸다. 월출산 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리다가 제법 험준하게 불끈 솟아오른 흑석산(黑石山) 밑에 붙은 마을이어서 당시 산사람들이 밤이면 쳐들어와다가 낮이면 다시 후퇴하곤 했기 때문이다. 즐지에 보금자리를 잃은 마을 사람들은 뽕뽕이 고향을 떠나고 지금은 겨우 30여 호만 살고 있다. 아직도 빈 집터들이 6.25전쟁의 아픈 상흔으로 남아 옛날의 평화롭고 풍요하건 그 시절의 쓰린 기억을 담고 있다. 6.25전쟁의 할퀴 상처로 피폐해진 살림살이 때문에 내 부모님은 고생고생만 하시다가 환갑을 넘기면서 몇 년 사이로 돌아가시고 형제 남매와 친척 친지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별써 유명을 달리 하거나 소식마저 두절된 사람들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을 해야 하는 운명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이다. 생.노.병.사의 사고(四苦)에 이어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의 팔고(八苦)의 고해(苦海)에서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 浮雲自體本無實 / 生死去來亦如然”

이 불교훈(佛敎訓)은 한 조각 뜬구름 같이 덧없는 인생살이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해하며 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소망과 사명 없이는 이 또한 허무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 험난한 고해에 한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적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사명감과 꿈 하나쯤은 부여받았으니 그 인연

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당신과 우리 사이는 상대성 원리보다도 더 위대한 우주적, 이타적(利他的)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인연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 해법(解法) 차원의 수행(修行)을 사무량심(四無量心)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즉,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란, 모든 주위 사물을 무량한 자애로움으로 여기는 마음(慈無量心),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한없이 측은히 여겨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悲無量心), 만인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아 늘 즐거움을 갖는 마음(喜無量心), 모든 원한과 집착을 버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捨無量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수행하고 근신하는 자세로 살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삶의 도(道)를 깨달아 그 자체가 피안(彼岸)이요 부처의 세계라고 하지 않는가. 이는 신자와 불신자, 종교 종파를 초월하여 사람 사는 도리의 보편타당한 절대 진리가 아닌가 한다. 요컨대, 나 자신부터 말과 마음만이 아닌 실행이 중요할 뿐이다.

행단(杏壇)이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을 말한다. 공자님이 살구나무로 만든 단위에 앉아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또 행림(杏林)이란 의사를 공경하여 부르는 말이다. 중국 오나라의 뛰어난 의원 동봉(董奉)이 보수를 받지 않고 중환자가 병이 나으면 살구나무 셋 그루, 경환자가 나으면 한 그루씩 심게 하여 수년 후에는 살구나무 숲을 이루어 동봉행림(董奉杏林)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나는 중농의 가정에서 3남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커서 의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랬던 것이 6.25전쟁에 형님이 의용군으로 끌려가 행방불명이 되고 살림이 피폐해져 경황없이 지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사가 되려던 꿈은 무산되고 말았다.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었다면 옛적 동봉과 같은 일을 하여 피폐해진 고향 마을을 다시 한번 아지랑이와 벌나비가 넘실대는 살구나무 숲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천리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이런 글이라도 옛 꿈을 실어 위안을 삼는지도 모르겠다.

1백여호가 넘어 길이 몽실대던 마을이 겨우 30여호의 초라한 마을로 피폐해진 내고향 방춘(芳春)골, 그 많은 살구나무들도 불에 타 5백여년전 마을을 창시(創始)한 남은공(南隱公:金孝友)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눈물겹기만 하다.

꿈은 무지개처럼 아름다우나 역시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름답고 달콤한 꿈을 꾸고 싶다. 우리의 걸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듯이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 정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깨어진 꿈의 조각들을 다시 이으면서 좌절하지 않고 정진수행하는 자세로 살고 싶다.

집안 세계(世系) 작성해 각 종친들에게 발송

순천김씨 양경공 祖 남은공과 김상운씨(70 황산면 남리), 전국의 종친들에게 집안의 세계를 정리해 주는 재미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순천김씨 시조에서부터 세계를 써 달라고 부탁한 사람의 손자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를 일일이 붓으로 써 우송해 주는 일에 푹 빠져 사는 김씨가 현재까지 전국의 종친들에게 보내준 세계는 300여장.

많지 않은 돈이지만 자비를 들여 하는 일이라 더욱 보람이 있는 김씨는 문중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사람이다. 명문집안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면 후손들의 삶도 더욱 가치있고 남에게 본보기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세계를 작성해 주는 일은 붓을 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連落處 HP 011-9778-1940 TEL 061-532-2468

墓祀參考資料

지난 44호 묘사(墓祀)에 관한 자료로 흘기(笏記)를 풀이하여 실은바 있고 그 후속으로 음력10월 시향절(時享節)을 앞두고 향사축문을 실습니다. 시향에 참여하여 축관이 독축(讀祝)을 해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절만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라 축문의 서식과 그 내용을 풀이해서 참고가 되게 게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우리글이 있으니 쉬운 우리말 우리 한글로 써서 조상님께 고하여도 의례(儀禮)에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이에 감히 첨언합니다.

1) 墓祀祝

維 유 (생각하온데)
 歲次 〇〇十月〇〇 朔十五日〇〇 및 代孫〇〇
 세차는 삭 (歲次는) (그해간지) (그달초하루일진) (그날의 일진) (제주이름)
 敢昭告于
 감 소 고 우 (감히 밝히 아뢰옵니다)
 顯 〇代祖考 學生 府君
 顯 〇代祖妣 孺人 〇〇〇氏之墓 氣序流易
 현 대조비 유인 씨지묘 기서 유역 (세월이 바뀌어)

霜露既降	瞻掃奉塋	不勝感慕
상로기강	침소봉영	불승감모
(서리와 이슬이입내려서)	(묘역을깨끗이하고 둘러보오니)	(사모의정을 이길 수 없어)
謹以清酌	庶羞祗薦	歲事 尙
금이청작	서수지천	세사 상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제수를 올리오니)	(해마다 있는 일이오니)

饗 향 (음향하옵소서)

- ※ 1. 벼슬 있는 분은 학생 대신 벼슬명을, 孺人대신 淑人등 봉호를 쓴다.
- 2. 〇안에는 그 곳에 합당한 글을 쓴다.
- 3. 顯자와 饗자는 한 칸 위에 쓴다.

2) 山神祝

維 유
 歲次 〇〇十月〇〇 朔十五日〇〇 金〇〇
 세차 삭 (제주 아닌 축임은 사람)
 敢昭告于
 감 소 고 우 (감히 밝히 아뢰옵니다)
 土地之神 및代孫〇〇 恭修歲事于
 토 지 지 신 공 수 세 사 우 (토지신이지어) (공경히 제사를 지내고저 합니다)
 顯 〇代祖考 學生 府君
 顯 〇代祖妣 孺人 〇〇〇氏地墓 維時保佑
 유시 보우 (항상 도우심을 받사와)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실타신휴	감이주찬	경신전헌 상
(참으로 신의 은총입니다)	(감히 술과 찬을)	(공경히 올리오니)

饗 향 (음향하옵소서)

※ 〇안은 墓祀祝과 같음

3) 父母忌祭祝

維 유
 歲次 〇〇五月〇〇 朔十月〇〇 孝子 〇〇
 세차 삭 효자
 敢昭告于
 감 소 고 우
 顯 考 學生 府君
 顯 妣 孺人 〇〇〇氏 歲序遷易
 세서 천역 (세월이 바뀌어서)
 顯 考 諱曰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현고 휘일복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돌아가신 님을 맞으니) (지난일이 생각나서) (망극하기 일을 데 없습디다.)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 尙
 돈이청작 서수공신 전헌 상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제수를 공손히) (올리오니)

饗 향 (음향하옵소서)

4) 墓祀合祀祝

維 유
 歲次 〇〇十月〇〇 朔十日〇〇 十代孫 〇〇
 敢昭告于
 顯 十代祖考 學生 府君
 顯 十代祖妣 孺人 〇〇 金氏之墓 氣序流易
 기서 유역

霜露既降	瞻掃奉塋	不勝感慕
상로기강	침소봉영	불승감모
謹以清酌	庶羞祗薦	歲事 以
금이청작	서수지천	세사 이

 顯 九代祖考 學生 府君
 顯 九代祖妣 孺人 〇〇 李氏
 顯 八代祖考 學生 府君
 顯 八代祖妣 孺人 〇〇〇氏 耐食 尙
 부식 상 (와 함께)

饗 향 (음향하옵소서)



中央宗親會 鍾植 會長을 대신하여 榮熙 顧問으로부터 白壽几杖 靑藜杖을 받는 이필숙 할머니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5년 5월 20일 ~ 2005년 10월 6일

김동환	*납5년06월27일	경기 안산	김동필	*납5년06월24일	서울 서초
김광연	*납5년06월09일	충북 영동	김경주	*납5년06월14일	경기 고양
김교남	*납5년06월20일	대전 대덕	김일환	*납5년06월15일	대구 수성
김기환	*납5년07월15일	경북 문경	김철희	*납5년06월03일	서울 용산
김남술	*납5년06월20일	전남 해남	김정남	*납5년06월13일	서울 서초
김도균	*납5년09월26일	강원 원주	김귀순	*납5년06월22일	서울 서초
김동기	*납5년06월14일	서울 동대문	김병남	*납5년06월09일	경기 김포
김동석	*납5년06월21일	경북 성주	김왕희	*납5년06월27일	울산 동구
김동석	*납5년06월16일	경기 김포	김동환	*납5년07월01일	서울 강남
김동원	*납5년07월25일	경북 경주	김성일	*납5년06월16일	경기 군포
김명남	*납5년06월14일	충남 공주	김호일	*납5년06월15일	경기 수원
김명환	*납5년06월15일	충남 부여	김형주	*납5년06월30일	광주 동구
김성희	*납5년06월17일	경기 파주	김태일	*납5년08월29일	경기 성남
김세연	*납5년07월21일	경기 파주	김상식	*납5년06월28일	대구 동구
김세원	*납5년07월25일	경북 영양	김중건	*납5년06월09일	경기 광명
김순희	*납5년07월13일	경기 안산	김장호	*납5년06월22일	강원 춘천
김영순	*납5년06월14일	강원 철원	김동웅	*납5년06월14일	대구 달서
김용환	*납5년06월20일	강원 원주	김윤근	*납5년06월20일	충남 예산
김인상	*납5년06월27일	충남 보령	김동수	*납5년06월22일	대구 동구
김인홍	*납5년06월23일	경북 영주	김정연	*납5년07월10일	대전 서구
김종근	*납5년06월22일	전남 해남	김기정	*납5년06월21일	서울 서대문
김지현	*납5년06월30일	경북 문경	김경환	*납5년06월14일	경기 시흥
김학수	*납5년06월14일	경북 문경	김문환	*납5년06월10일	서울 서대문
김형준	*납5년06월24일	경북 영천	김성남	*납5년06월24일	전북 익산
김국영	*납5년06월21일	충남 금산	김희은	*납5년08월25일	대전 중구
김길영	*납5년09월26일	서울 서초	김종현	*납5년06월30일	서울 도봉
김동한	*납5년06월13일	전북 임실	김귀영	*납5년09월30일	전북 전주
김범배	*납5년07월28일	인천 남동구			
김봉태	*납5년06월13일	전남 해남	대 의 원		
김상남	*납5년07월05일	전남 해남	김상실	*납5년06월29일	전남 해남
김상범	*납5년06월22일	인천 부평	김태수	*납5년07월04일	전북 전주
김상하	*납5년06월24일	경기 평택	김상울	*납5년08월29일	서울 강동
김성호	*납5년06월23일	서울 양천	김장환	*납5년06월10일	충남 보령
김연관	*납5년08월18일	경기 이천	김대석	*납5년07월18일	충남 보령
김영석	*납5년07월08일	서울 서초	김동원	*납5년10월05일	서울 구로
김용훈	*납5년07월27일	서울 은평			
김윤일	*납5년07월01일	인천 남동구	고 문		
김정수	*납5년07월04일	전북 임실	김채원	*납5년06월13일	서울 영등포
김정희	*납5년06월28일	서울 강서	김영희	*납5년10월04일	대구 남구
김중철	*납5년06월17일	전남 여수			
김필수	*납5년06월27일	인천 강화	이 사		
김형연	*납5년06월13일	인천 연수	김상우	*납5년06월15일	경기 용인
김석환	*납5년08월01일	전북 순창			
김기수	*납5년06월10일	경기 남양주	44호누락자		
김덕규	*납5년06월17일	경기 안양	김동익	*납5년05월16일	충북 충주
김만형	*납5년06월10일	서울 영등포	김석희	*납5년02월24일	대구 남구
김이연	*납5년06월13일	경기 용인	김시연	*납5년04월20일	경북 문경
김원남	*납5년07월19일	강원 평창	김한경	*납5년02월14일	전남 해남(대의원)
김윤택	*납5년06월14일	전남 담양	김기남	*납5년02월28일	인천 서구
김홍연	*납5년05월25일	경기 성남	김수영	*납5년05월10일	경기 수원
김무원	*납5년06월29일	전남 해남			
김태현	*납5년06월15일	전남 해남	무 명 인		
김홍연	*납5년08월16일	울산 남구	*납5년05월25일	정보통신/광화	
김상현	*납5년06월14일	울산 중구	*납5년06월22일	부산/덕포	
김용연	*납5년06월21일	서울 성북	*납5년06월22일	정보(양산중)	
김강원	*납5년06월08일	전북 익산	*납5년06월24일	농협/여천	
김휘천	*납5년07월04일	경기 수원	*납5년06월29일	농협/진접	
김중권	*납5년06월10일	경기 김포	*납5년07월01일	농협/서산	
김정웅	*납5년07월18일	전북 익산	*납5년08월01일	새마을/성내	
김이병	*납5년06월10일	경기 고양	*납5년08월02일	농협/점촌	
김수효	*납5년08월12일	서울 금천	*납5년08월17일	농협/이천	
김재동	*납5년06월20일	경기 용인	*납5년09월29일	정보통신/봉동	

A member of the HANWHA family

40

35

30

20

나는 싸워야 한다

길들여지려는 나와... 타협하려는 나와... 포기하려는 나와... 싸워야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 후반에 서 있기 때문이다

Change the Life!

Korea Life
대한생명